

눈은 몸의 등불

1.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성경 구절, 몇 번 나오나?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는 신약 성서(공동번역)에 두 번씩이나 나온다. 즉 마태오 6장 22~23절과 루가 11장 34~36절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다. 이렇듯 성경책에 나오는 눈에 관련된 이야기는 눈을 뜨게 한 기적과 함께 무려 99회나 나온다고 하니 눈의 중요성은 우리 말 속담의 '몸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 과 마찬가지로 눈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임이 틀림없다.

2.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교정 안경이 없어도 시력이 정상으로 된다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백내장 환자는 누구나 수술 전 눈의 굴절 이상을 계측해 수술 후 정상인의 눈처럼 해주기 위해 후방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삽입하는 후방인공수정체는 난시 교정과 노안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후 안경을 맞추어 착용해야 한다. 아주 심한 난시 환자에게는 난시까지 교정되는 토릭 후방인공수정체를, 또 노안 교정까지 되는 조절성(또는 다초점용) 후방인공수정체가 상품화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환자들이 그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돋보기를 다시 사용해야 하고 난시도 100% 교정이 안 된다. 선택 진료

인 특진(수술비의 배)이 개설돼 있는 큰 대학병원에서는 수술비가 약 50만 원 더 추가 된다.

3. 안과 수술 의사가 최장수 수술 의사가 맞나? 고령에도 수술하기 쉽다고?

50여년 전에는 수술용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3~4배 확대되는 돋보기를 쓰고 수술해야 했다. 이 때문에 나이 50이 되면 섬세한 눈 수술을 하기가 힘들어 안과 수술 의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수술용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외과계에서도 특히 안과나 이비인후과 수술, 신경외과 수술은 고령의 심한 노안을 가진 수술 의라도 수술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구미 선진국에선 70~80대의 고령 안과 의사들이 원기 왕성하게 백내장 수술, 라식 수술, 각막이식 수술 등을 하면서 학회에 발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선진국에는 안과의사가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면 손을 떼려는 의사들이 많아 대조된다. 선진국에는 안과의사들의 강한 정신력과 수술용 현미경 덕분에 80세 고령에도 명의로 이름난 사람들이 많다. 의술은 경험 과학이다. 많은 수술 경험을 가진 선임자를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료계, 선후배 간 또는 사제지간의 계급 서열이 남달리 엄격히 지켜지는 사회가 바로 의료계다.

4. 각막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기증 각막은 나이에 상관없다고?

눈의 가장 바깥의 검은자위는 홍채 색소 때

문에 검게 보이며, 실제 그 표면은 투명한 각막이 마치 시계의 유리 뚜껑처럼 돼 있다. 이의 굴절력은 눈 전체 굴절력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력 보존에 매우 중요하다. 만일 각막에 병이 생겨 혼탁해지면 결국 시력 장애가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망 6시간 이내에 기증 각막을 적출해 이식 수술에 사용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안구 기증이 뜸하기 때문에 미국 안은행에서 수입해 사용한다. 특수 옵티콜 용액에 기증 각막편을 넣어 섭씨 4도의 아이스박스에 넣어져 수송되는데 안구 적출 후 1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 한국에서는 안구 기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 게다가 고령일수록 각막내피 세포가 감소돼 상급의 각막 이식용 각막은 아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의식 속에 유교의 잔재가 남아 있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부모가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유언했더라도 상주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 특유의 가족 상황에서는 노령의 현안마저 얻기 힘든 것이다. 60세 이상 노년 기증 안구는 표층각막이식에 사용될 수는 있어도 상급의 각막이 아니기 때문에 전층 각막 이식에는 사용될 수 없다. ❶



김재호 명동안과의원 원장
가톨릭대 의과대 명예교수, 재단법인 선산안과연구재단 이사장, 가톨릭 의과대 및 동대학원졸업(의학박사),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활머 안과연구소에서 연구. 일본 도쿄대 의학부 안과학교실에서 연구.